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86.09	↑ 코스닥	711.82
	(+20.99)		(+1.00)
↓ 금리 (미국 9년)	3.369	↓ 환율 (원-달러)	1241.30
	(-0.097)		(-4.50)

【르포】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
안전시험동 가보니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美·日·대만 강화되는 ‘반도체 동맹’... 韓 소외 우려

반도체 주도권 확보, 투자 가속화
대만 TSMC, 日 공장설립 검토중
美 전폭 지원에 현지 추가 증설도
日 카옥시아-美 WD 합병 재논의
삼성, 테일러시 신공장 유력에도
‘누더기’ 특별법에 투자 제자리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부지

반도체 업계가 시장 침체 속에서도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만은 멈추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글로벌 정부도 반도체 생산 기지 유치 작전에 나선 가운데,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TSMC는 최근 일본에 또다른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투자 금액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했지만, 생산 시설 증설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찌감치 TSMC는 일본 소니 등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구마모토현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다. 2024년 완공 예정, 지난해 말부터 도쿄 인근 연구개발 센터도 운영을 시작했다.

웨이저자 TSMC CEO는 새로운 공장 투자 전제 조건으로 현지 정부 지원을 들었다. 일본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며 TSMC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대만은 미국과도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 최첨단 공정을 도입하는 등 이미 여러개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한 상태다. 현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받은 상태. 앞으로도 추

가 증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TSMC는 유럽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예고했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 국가와 지원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MC가 적지 않은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설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는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반도체 산업이 일시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상황, 호황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더 높은 생산성을 앞세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 정부도 TSMC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반도체 중요성을 확인하고 생산 기지를 국내로 들여오려는 노력이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짓는 공장도 투자액 약 10조원 중 40%를 지원했으며, 다음 공장도 대규모 지원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반도체 동맹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미국 인텔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고, 반도체 장비 시장 주도권을 토대로 미국으로부터 중국 견제 부탁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카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 합병 논의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반도체 공룡도 태어날 분위기다. 각사는 낸드플래시 점유율 2위와 4위, 단순 합산으로는 현재 1위인 삼성전자도 넘어서게 된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테일러시 신공장 증설이 유력시되며, 현지 정부로부터 삼성고속도로도 선물로 받았다. TSMC보다 한발 앞서 3나노 공정을 양산하는 등 파운드리 시장에서 추격을 본격화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주요 소재 및 장비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도 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동맹에서는 다소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과는 지난 수출규제로 표면화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미국도 반도체 ‘탈아시아’ 구상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의존도를 줄이는데 더 힘을 쏟고 있다.

한국 정부 대응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미 반도체 특별법을 ‘누더기’로 통곡시키면서 추가 투자를 사실상 가로막은 상태. 일단 추가 개정안이 나오긴 했지만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Q 르포 | SK온의 꿈 ‘美 센터기’ 현장 가보니

“2030년 배터리 세계 1위” 전기트럭 82만대 분량 양산

(F-150 라이트닝)

“전기차인 포드 ‘F-150 라이트닝’은 공사 현장 곳곳을 힘차게 누볐다. SK온 기술로 이곳에서 양산될 배터리를 탑재한 포드 F-150은 포드는 힘이 넘쳤다.”

구름 낀 하늘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지난 8일 (현지시간) ‘블루오벌SK(BOSK) 센터기’ 공사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과 각종 중장비들이 드넓은 부지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부지 규모만 628만㎡(약 190만평)에 달하는 BOSK 센터기는 연산 43GWh(기가와트시)짜리 공장 2개가 각각 2025년,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SK온-포드 114억달러 공동투자
美 단일부지 최대 규모 190만평
연산 43GWh짜리 공장 2개 건립
북미 배터리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현지 근로자 700여명 공사 참여
양국 민간경쟁 활성화 의지 결실

총 86GWh는 포드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82만대분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단일 부지내 최대 생산 규모다. BOSK는 114억달러(약 14조1500억원)를 투자해 센터기주(86GWh)와 테네시주(43GWh)에 각각 배터리 공장 2개, 1개를 짓기로 했다. ‘2030년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꿈꾸는 SK온의 야심이 집대성된 센터기 공장에만 대략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가 투자된다.

기자단은 10대의 버기카와 3대의 포드 F-150을 번갈아가면서 타고 현

장을 둘러봤다. 포드 F-150은 실제 센터기 현장에서 생산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다. 1존과 3존은 포드를 타고 이동했고 2존은 버기를 탔다. 버기카와 포드차의 차이를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었다.

현장 바닥은 돌과 흙으로 고르지 못했다. 비가온 다음이라 물웅덩이도 많았다. 포드 150은 이런 약조건인 상황에서 불구하고 비교적 안전한 승차감을 자아내며 시원하게 공사 현장을 달렸다. 또 갑자기 속도를 내도 뒤로 밀리는 현상이 없었다. 소음도 없었다. 버기차는 소음탓에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도 불가능했다.

포드차량을 운전한 현장 근로자는 “F-150은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넓은 현장을 누리는데 적합한 모델이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등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미리 구현된 제품의 정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박창석 SK온 BOSK 건설 Unit PL은 “초대형 프로젝트인만큼 모두가 합심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 말했다. 박 PL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공장들이 건설되고 있다”며 “포드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배터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미국 단일 부지내 최대 생산 규모
BOSK 센터기는 SK온과 미국의 완성차 기업 포드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가 짓고 있는 배터리 캠퍼스다. (4면에 계속)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itna@



드론으로 촬영한 블루오벌 SK센터기 공장

/SK

대형마트 ‘평일 휴업’... 규제 완화 신호탄 될까

대구시-8개 구·군 내달부터
매달 둘째·넷째 월요일 휴무
소상공인 단체 반발 속 전환

대구시가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 이번 변경 조치는 대구 지역의 일부 소상공인들의 요청에서 시작했는데,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거센 반대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변화 결과가 추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유지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행정예고

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전환하기로 했다. 성공적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 지역 대형마트는 2월 13일 첫 평일 휴무에 들어가며,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에 쉰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분기별 개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전국 특·광역시단체 중 첫 번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30%에 해당하는 50여 곳 수준으로, 전국 403개 마트 중 100개 지점이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일로 두고 있다.

대표적인 평일 의무휴업일 운영 지역은 고양시다. 고양시는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운영 중이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외교부, MBC에尹비속어 발언 소송... “국내외 신뢰에 부정 영향”
▲ 장제원, 제2 진박감발사에 “나경원, ‘제2 유승민’ 되자말라” /사진 뉴스스

▲ 민주당, 김성태 국내 송환에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소실”
▲ 이재명, 당 기본사회위원장 맡기로... “책임있게 풀어야 할 것”



▲ 권영세 “北, 미사일에 1조원 쏟아...도발 계속해도 대화 시작” /사진 뉴스스
▲ 서훈·박지원 ‘서해피격 은폐·월북몰이’ 혐의, 20일 법정공방 돌입